

감출게 많나? 시민 알권리 무시하는 광주시

5년간 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 170건…절차 무시 낙장 공개도
내용 은폐·허위기재해도 제재규정 없어…행정 투명성 문제 지적

광주시가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 처리를 남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광주시가 시민들의 청구에 비공개를 결정한 건수는 오히려 매년 늘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보공개에 대해 시가 소극적·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이유는 정보공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공개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 또는 거짓 등 허위로 기재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광주시에 신청된 정보공

개 청구 가운데 비공개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8건, 2015년 20건, 2016년 32건, 2017년 45건, 2018년 55건 등 총 170건에 달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인이 지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공개 건수가 매년 증가세인데다 4년 만에 3배가 넘는 등 광주시의 정보공개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비공개 결정된 사유별 현황을 보면 개인 사생활 침해 19건, 영업상비밀침해 12건,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법령상 비밀, 비공개 10건, 재판관련 정보 등 2건, 국익침해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만 공개된 '부분공개'도 2014년

114건, 2015년 220건, 2016년 308건, 2017년 382건, 2018년 557건을 기록했다. 2018년 경우 전년도(382건) 대비 175건(45.8%)이나 증가했다.

실제 광주시상수도분부는 '지원배수지 공원과 사업 관련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14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무시한 채, 28일이 지나서야 관리자 4명의 이름만 적힌 답변을 했다.

그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광주시 상수도 부지내 태양광 시설 관련 계약 내용 ▲태양광 시설 면적과 개수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임대료, 발전수익 배당금 ▲현재 매각된 태양광 시설 운영 관리 주체 등 대부분의 정보 공개 처분을 비공개 했다.

앞서 광주시는 박광대 전 광주시장 재임 시절 '시장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

유로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광주지법은 2008년 시민단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주진비 정보공개 소송에서 "업무주진비와 민간지원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손중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 담당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기본현황과 위약금 등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시민의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 위약금 등은 광주시가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안하는 지자체는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증거다"면서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정보공개 청구 여부를 결정한 간부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재 조항이 없어 관련 법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엄마 나라 책 읽는 아이들

3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에서 다문화어르신들이 자국 어린이들에게 자국언어로 쓰여진 도서를 읽어주고 있다. 운암도서관은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다문화도서 1200여권을 구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 한 은행 지점에서
100달러 위조지폐 발견
경찰 수사 착수

나주의 한 은행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2분 나주시 한 은행 지점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확인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위조지폐는 이 은행 본점이 나주지점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위폐 감별기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점은 해당 위조지폐를 나주지점으로 돌려보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위조지폐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보고 위조 수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요청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

563억 부당이득 필립에셋 회장 등 7명 구속기소

장외시장 허위정보 퍼트려
광주지검, 5명은 불구속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엄일석 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는 등 허위정보를 퍼트려

2~2.5배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587억원에 사들인 주식을 3767억원에 되팔았다. 검찰은 차액 2180억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 563억원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전국 8곳에 지점을 두고 단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며 판매원과 본부

장급들에게 10~16% 수수료를 지급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엄 회장은 또 자신의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17억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산 뒤 필립에셋에 주당 1만2000원에 되팔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적장애 20대 취업 미끼 유인 감금 허드렛일 시키고 상습폭행 6명 적발

20대 남성 지적장애인을 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자신의 집에 감금, 허드렛일을 시키고 담뱃불로 수갑차레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20대 일당 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북부경찰은 특수상해·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정모(24)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한달여간 광주시 북구 유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김모(24·지적장애 5급)씨와 함께 살면서 김씨의 다리를 담뱃불로 91차례 지지고, 철제 옷걸이로 수갑

경찰 조사 결과 정씨 일당은 지적능력이 12세 수준으로 알려진 김씨에게 택배 배달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유인해 자신들의 숙소로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김씨에게 청소·빨래 등 집안일을 시키는가 하면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

와 재미 삼아 수백차례 폭행했다. 김씨의 다리에 생긴 지름 1.5cm 크기 화상 자국을 볼때로 후벼 파는 만행도 저질렀다.

이들은 또 김씨를 포함한 지적장애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휴대전화를 만들게 해 소액결제로 자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샀다.

앞서 지난해 9월15일께에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이모(24)씨에게 자신의 여자친구 다리를 뺏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0월말 "옆집에서 남성의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주민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은 폭행을 주도한 정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 취업 사기 기아차 노조간부 도피 도운 경찰 기소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취업 사기'로 수배 중인 기아자동차 전 노조 간부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김모(47) 경정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취업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친구 황모(48)씨에게 여수에서 원룸을 빌려 은신처로 제공했으며, 300만원 상당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다.

김씨는 황씨와 SNS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황씨의 행방을 묻는 전남청 수사관에게 "거처를 알지 못한다. 연락이 두절됐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전남청은 현재 김 경정을 직위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당시 황씨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9명에게 19억원을 챙긴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흥만 방조제 해상서

남녀 변사체 발견

3일 오후 1시10분께 고흥군 두원면 고흥만 방조제에서 A(51)씨와 B(49)씨 등 남녀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이들은 방조제 아래 해상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별다른 외상은 확인되

지 않았다.

해경은 이들의 옷이 젖어 있는 점을 토대로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근에는 이들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승합차가 발견됐다. 남성은 성년, 여자는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들의 관계, 이동 경로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예식장 요리사가 여성 직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



○…예식장 요리사가 여성 직원 탈의실에 이른바 '몰카'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자신이 일하던 광주 모 예식장 탈의실 안의 소화기

밀반침 속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 여성 13명의 탈의 장면을 촬영했다는 것.

○…조사 결과 A씨는 내연 여성의 동의 없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촬영해 컴퓨터에 보관해 놓은 혐의까지 드러났으며, 광주지검은 몰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구속기소했다고.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 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